

청소년 모방 자살사고의 심리적
기제에 관한 탐색
A Study on Psychosocial Mechanism
of Copycat Suicide among
Adolescents

< 대표저술 >

- 『가계도분석을 통해 본 세계유명인의 가족비밀』, 학지사, (2007).
「한국형 결혼관 척도 개발 연구」, 한국임상심리학회, (2007).
「청소년의 창의성 교육: 사고의 전환인가? 잠재가능성의 실현인가?」, 한국교육심리학회, 2006).
『보웬의 가족치료이론』, 2005, 학지사

관심분야: 다문화가족, 세대갈등, 세대간 전수, 가족심리 및 가족상담

E-mail : shnam@honam.ac.kr

논문접수일 : 2008년 3월 20일

논문심사일 : 2008년 4월 2일

게재확정일 : 2008년 4월 16일

• 남 순 현 (Nam, Soon-hyeon)

• 학위취득대학 : 고려대학교

• 현직 :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청소년 모방 자살사고의 심리적 기제에 관한 탐색

< 국문요약 >

최근 자살률은 교통사고율을 능가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47%가 자살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보고할 정도로 청소년자살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자살의 심각성을 파악해보고, 청소년기 발달적 특징과 문화정체감 혼란이 청소년의 모방자살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13세부터 22세까지 중·고·대학생 450명이며, 연구조사기간은 2007년 6월 7일부터 6월 25일까지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번 이상 자살충동을 느낀 청소년은 208명(46.2%), 한번 이상 자해나 자살시도를 경험한 청소년은 76명(16.9%), 심각하게 자살을 고민한 적이 있는 청소년은 214명(47.5%)으로 청소년자살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개인주의가 강한 청소년은 집단주의가 강한 청소년에 비해 심리적 행복감을 느끼지 못했지만, 사회부적응을 겪고 있는지는 않았다. 셋째, 개인주의가 강한 청소년이 심리적 불행감을 느낀다고 해서, 우울증상을 보이지는 않았다. 즉, 자기도피적 사고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미래에 대해 비현실적 낙관태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AMOS 구조방정식을 통해 청소년의 모방자살에 관한 연구가설모형을 검증한 결과, 문화정체감 혼란으로 인한 청소년의 심리적 불행감은 주요사건(예, 학업성적)에 대해 유의한 우울유발적 귀인을 촉진시켰다. 개인주의가 강한 청소년의 이런 경향은 유명인의 자살(예, 故 이은주)이 하나의 기폭제가 되어 심리적 불행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은 그들과 동일시하거나 그들의 자살행동에 동조하는 것이라는 믿는 규범동조가 자살사고를 유발시켜, 결국 모방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 제 어] 청소년, 모방자살사고, 자아중심성, 문화정체감, 자살동조, 규범동조, 정보동조, 동일시동조

I. 서론

최근 동반자살을 희극화한 영화가 개봉될 정도로 자살은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인 것이 되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자살률은 교통사고율을 능가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저명한 유명인과 유명연예인의 자살은 자살을 촉진시키는 또 다른 요인이 되었다. 사회학자 David Phillips가 1974년에 명명한 모방자살(copycat suicide) 혹은 베르테르 효과(Werther Effect)가 이것이고, 자신이 모델로 삼거나 존경하던 인물 또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있는 유명인의 자살은 특히, 청소년의 47%가 자살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보고할 정도로, 자살취약성이 높은 청소년에게 죽은 사람과 자신을 더 동일시하는 경향을 낳았다.

한국경제연구학회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우리 사회의 자살률 증가를 경제와 사회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장통으로 간주했다(한국일보, 2007. 8. 8). 실제로 자살률은 2003년까지 경기침체에 따른 생활고가 가장 큰 원인이었고, 20대와 30대의 자살률이 극심했다(세계일보, 2004. 9. 22). 따라서 연이은 자살률은 국가차원의 자살예방이 시급함을 예고했고, 이에 한국자살예방협회는 2004년 7월 30일 언론의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발간했으며(보건복지부, 2005), WHO에서는 2006년 9월 6일을 제 2회 자살예방의 날로 선정(뉴스머니 투데이, 2006. 9. 6)하는 등 자살위험에 대한 자각이 고조되었다. 하지만 자살예방에 대한 국가적 각성과 권고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2005년 2월 영화배우 이은주의 자살 이후 한 달간 서울지역의 자살률이 하루 평균 0.84명에서 2.13명으로 크게 급증했다는 사실은 과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영화배우 이은주의 자살 이후 하루 평균 55건의 자살관련보도가 쏟아졌고, 그 다음달 월별 자살자 수는 1.78배 급증했다(통계청, 2005). 이후 사회변동 속에서 정계와 재계의 유명인사 및 유명연예인의 자살에 따른 모방자살률은 과히 충격적이었다. 이런 모방자살의 예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2003년 홍콩 배우 장국영의 투신자살 이후 그 다음날 젊은 남녀의 죽음이 줄을 이은 것과 미국의 금문교가 자살의 다리로 불리는 것도 동일한 이유이다. 이처럼 모방자살은 최근 'Gloomy Generation'이라고 불리는 청소년에게 유명인의 자살에서 오는 동조의식에서 자신의 자살을 합리화하는 전염효과를 갖게 한다(헤럴드경제, 2007. 2. 12). 실제로 2006년 청소년개발원의 최근 5년간 청소년자살 증가추이 현황을 보더라도 청소년은 하루 2명꼴로 목숨을 끊거나 자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파이낸셜 뉴스, 2006. 10. 30), 이은주의 죽음이후 모방자살률은 청소년의 연령대별로 15.6%에서 30.6%까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위와 같이 유명연예인의 자살 이후 일반 청소년이 그들의 행위를 모방하여 자살에 이르게 되는 심리적 기제를 청소년기 발달적 특징과 문화정체감 혼란의 관점에서 탐색해보는데 있다. 첫째, 청소년기 발달적 특징이 자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둘째, 한국문화 속에서 개성화와 개인주의가 강한 청소년들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유명인의 자살에 동조하게 되는 과정을 탐색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명인의 자살에 동조하여 자살사고를 유발하는 동조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청소년 모방 자살사고의 심리적 기제에 관한 탐색 53

II.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의 검토

1. 청소년기 발달적 특징과 자살

자살은 인간이 지닌 가장 극단적인 문제해결의 한 방법으로 모든 연령층에 걸쳐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특히 청소년기는 그들이 지닌 발달적 특징으로 인해 이러한 행동이 나타나기 쉬운 시기이고, 아동에서 성인으로 성장하는 전환기로 신체적, 사회적 그리고 심리적으로 커다란 변화에 직면하는 시기이다(윤성림, 윤진, 1993). 따라서 청소년기는 사회문화적 환경의 영향을 받기 쉬우며, 심리사회적 부적응이나 일탈행동 및 자살사고와 자살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최근 청소년 자살은 15-24세 청소년의 사망원인 중 2위,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Evans, Hawton, & Rodham, 2004). McWhirter 등(2004)의 보고에 따르면, 청소년의 약 11%가 자살을 시도한다고 하였으며, 이 비율은 여러 가지 문제를 보이는 청소년의 경우 약 33%의 증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경우에는 61%의 증가를 보였다(이승연, 2007).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한해 자살은 15-19세 청소년의 사인 중 2위(239명; 인구 10만명 당 7.6), 20-24세 청소년의 사인 중 1위(608명; 인구 10만명 당 16.0)에 해당하였다(통계청, 2006).

청소년기(adolescence)는 완전한 성숙이 이루어지고, 주요 생활의 장이 학교에서 직장으로 옮겨지며, 아동기의 의존성에서 벗어나 독립적 정체감을 추구하는 시기로서 18세에서 22세에 종결된다(Specht & Craig, 1987). 이런 청소년기를 가장 잘 대표하는 하나의 특징으로는 자아중심성(Adolescent Egocentrism)을 꼽을 수 있다. 청소년은 자아에

54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9집

대한 새로운 인식을 경험하고 가치관을 재확립하며 자율성을 발달시키고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계획한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많은 청소년이 스트레스와 갈등을 경험하고, 갈등에서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해결책으로써 자살을 선택한다(Wodarski & Harris, 1987). 다시 말해,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이상주의적 경향, 강한 자의식, 위험행동 추구 경향, 비행 및 도당행동 및 기성세대에 대한 거센 저항 등이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의 특징이다.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을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자들(Blos, 1962; Jackson, 1989)은, 청소년이 내면화된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에서 느껴지는 상실감과 이탈감으로 인한 불안을 타인과의 과도한 친밀로 대치하려는 경향에서 ‘상상의 청중(Imaginary Audience)’이 발생하고, 청소년이 의존욕구와 분리불안을 부인하기 위한 하나의 방어로써 자기 능력과 중요성을 강조하는데서 ‘개인적 우화(Personal Fable)’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스트레스 유발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으로 청소년은 자살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김효창, 2006), 가상적 이미지에 대한 동경으로 평소 자신이 동일시하던 유명 연예인의 자살에 동조하여 모방 자살을 하는 이유 또한, 청소년기의 자아중심성과 관계있을 것이라고 추론해볼 수 있다.

실제로 안정되고 분화된 정체감을 형성하지 못한 아동의 병리적 동일시(pathological identification)가 자살행동을 유발한 연구(Pfeffer, 1981)를 통해보더라도, 자아정체감 위기를 겪는 청소년은 청소년기 발달적 특징으로 인해 유명 연예인의 자살을 직접 행동화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다른 발달 시기보다 청소년기에 모방자살률이 높은 이유일 것이다.

2. 문화의 영향과 자살에의 동조

청소년은 경제적 풍부함과 대중매체 발전의 영향으로 감각적·개인주의적 세대이며, 개인주의적 감각의 동질성이 큰 연령대라고 할 수 있다(Fashion Marketing Magazine, 1996). 즉 청소년은 기성세대보다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자신의 개성을 중시한다. 조궁호와 김은진(2001)은 개인주의 사회의 특징을 개인의 자율성, 독립성, 자립이라고 하였다.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사람은 타인과 다른 나만의 독특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개인주의 문화에서 구성원들은 타인과 구별되고 분리된 개체로서의 자기관(referential entity self)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최상진, 2007), 자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나 독립성이나 자율성 형성의 실패로써 집단과의 동조를 선택한다.

문화적 맥락에서 개별성과 관계성의 심리적 적응을 살펴본 김동직(1999)의 연구에서는 개별성보다 관계성이 우리사회 청소년의 적응에 더 중요한 변인임을 강조했다. 즉, 한국 대학생은 관계성이 독일대학생은 개별성이 심리적 적응에 더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의 가치는 변화하고 있다. 오늘날 청소년은 서구의 개인주의 사상에 바탕을 둔 교육제도, 생활양식, 정치체제 속에서 생활하면서 전통적인 집단주의적 가치에서 벗어나 점차 개인주의적 가치관과 태도를 더 많이 수용한다(임희섭, 1997; 차재호, 정지원, 1993). 따라서 우리 사회는 종래의 집단주의적 경향에서 이제는 개인주의적 경향으로 변화하는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변화는 과거 한국사회를 집단주의 문화로 구분하려는 확일성에서 벗어나게 한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청소년은 관계를 중시하는 타인지향성보다는 자

울과 독립을 추구하는 자기지향적인 경향이 강하다.

위와 같은 경향은 여전히 한국사회에 깊게 뿌리내려 있는 집단주의 문화 속에서 생존하고 있는 청소년에게 문화정체감 혼란을 초래한다. Singelis, Triandis, Bhawuk와 Gelfand(1995)도 개인주의-집단주의 이론이 문화를 설명하는데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애매하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대인관계의 위계나 평등에 따른 수직적 교류와 수평적 교류를 통한 문화의 틀에 맞추어 재해석해본다면, 수평적 집단주의는 '민주공동체 의식', 수평적 개인주의는 '바람직한 개인주의', 수직적 개인주의는 '이기주의', 수직적 집단주의는 '가족주의'라고 할 수 있다(한경미, 나영주, 2004). 그러나 유교적 전통이 뿌리깊은 우리 문화는 평등의 개념보다는 서열성을 강조하는 위계적인 문화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뿌리 깊게 잔존해 있는 우리 사회의 서열성은 우리 사회를 극단적인 가족주의에서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변모시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극단적인 가족주의가 빚어내는 청소년기 역기능 현상이 집단따돌림이라면,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빚어내는 청소년의 문제가 자살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상적인 삶에 근접한 삶을 살수록 심리적 행복감을 경험한다. 실제로 Ogilvie(1987)의 연구결과, 대학생 89% 이상이 자신이 이상적인 삶의 모습과 일치할 때 행복을 경험한다고 보고했다. 또한 자기개념과 관점에 따른 삶의 만족도 연구(Higgins, 1987)에서도, 독립적 자기개념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기관점과 불일치할 때 삶의 만족도가 떨어졌다. 이런 이유로 오늘날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청소년은 자신의 가치관과 생각을 존중하고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려고 한다. 하지만 강한 집단주의적 문화가치는 내 집단과의 강한 유대감과 소속감을 강조하며 개인의 독립과 자율을 간과한다.

따라서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오늘날 청소년은 우리 사회에서 문화정체감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상적인 삶과 현실적 괴리 속에서 심리적 불행감을 느끼는 청소년은 현실 도피의 한 수단으로써 유명 연예인의 자살에 자살충동을 느끼고, 현실 속에서 자아로부터 도피한다. 즉,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가치를 확립하고 자율성을 획득하여야 하는 청소년은 발달과업 성취에 실패한다. 이는 학교생활, 친구관계 및 가족 안에서 청소년의 부적응을 초래하고, 결국 자살에까지 이르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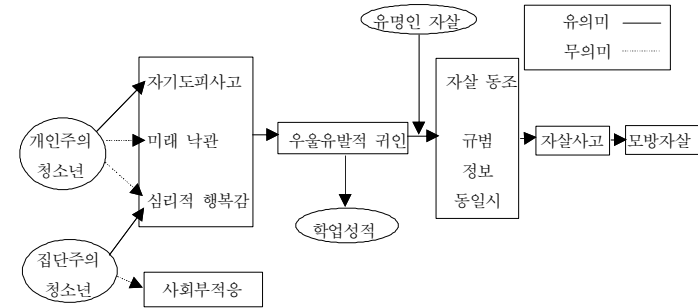
Beck(1976)는 자살한 사람들의 우울과 인지편파를 강조하였다. 우울한 사람은 우울하지 않은 사람보다 부정적 사건에 대해 자기비난(self-blame)이 강하며(Seligman, Kaslow, Alloy, Peterson, Tanenbaum & Abramson, 1984), 낮은 자존감과 부정적인 자기평가 및 미래에 대한 희망상실을 보인다(Kazdin, French, Unis, Ezveldt-Dawson & Sherick, 1983). 이는 우울한 사람들은 인지적 왜곡이 심함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결과이다. 또한 정상집단에서도 우울점수가 높은 집단이 우울점수가 낮은 집단보다 자신의 성공보다는 실패에 대해 내적(internal), 안정적(stable), 일반적(global) 귀인을 하는 경향이 강함이 보고되면서(임양희, 오경자, 1989), 우울한 사람이 일반인보다 우울유발귀인 성향(depressogenetic attribution)이 강함을 암시했다.

동조(conformity)란 다른 사람의 존재가 개인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심리적 현상으로 한 개인이 소속집단의 압력에 따르는 현상이다. Asch(1955)는 객관적 기준이 모호

할 뿐만 아니라 뚜렷한 경우에도 높은 동조율을 보이는 것에 대해 누가 동조를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이탈자가 되지 않으려는 동기 때문에, 개인은 집단의 규범을 받아들인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 집단 동조 압력에 굴복한다. 하지만 문화정체감 혼란 속에서 독립성이나 자율성 형성의 좌절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은 현실도피의 수단으로 유명연예인의 자살에 동조함으로써 자신이 겪는 갈등상황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믿는다. 애매모호하고 비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죽은 자와의 동조의식은 자기 패배적 귀인을 유발하고, 자기비하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문화정체감 혼란을 겪는 오늘날 청소년은 자신의 삶에 대해 우울유발적 귀인을 함으로써 유명인의 자살이 하나의 기폭제가 되어 그들의 자살을 모방하게 되는 것이다.

3.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는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 자살률의 심각성을 일깨우면서, 특히 청소년의 모방자살 원인을 청소년기 자아중심성과 문화정체감 혼란 속에서 야기되는 심리내적인 과정으로 탐색해보고자 한다. 청소년이 다른 연령에 비해 자살위험률이 높은 것은 청소년기 발달적 특징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청소년이 전통적인 한국문화 속에서 문화정체감 혼란을 겪을 때 그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선택하게 되는 동조의 한 현상으로써 모방자살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에 검증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은 연구가설모형을 설정하였고,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하였다.



<그림 1> 청소년의 모방자살사고에 관한 연구가설 모형

- 연구문제 1. 일반 청소년의 자살관련 사고 및 행동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인가?
- 연구문제 2.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청소년은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청소년보다 심리적 불행감과 사회부적응을 겪는가?
- 연구문제 3.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청소년은 우울증상을 겪고 있는가?
- 연구문제 4.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청소년은 학업성적에 대해 우울유발적 귀인을 하는가?
- 연구문제 5.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청소년은 유명연예인의 자살에 동조하는가? 만약 동조한다면, 어떤 동조유형을 취하는가?
- 연구문제 6.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청소년은 자살사고를 유발하는가?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의 대상자는 13세부터 22세까지 청소년 467명이다. 본 연구에서는 Specht와 Craig(1987)의 견해에 따라 청소년기를 아동기가 끝나는 13세에서 독립적 정체감이 완성되는 22세까지, 즉 중·고등학생 시기와 대학생 시기를 청소년기로 정의하였다. 전 생애적 관점에서 성인기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청소년 후기를 청년, 성년 등의 용어로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대학입시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시기에 대부분 심리적 유예기간을 겪는다는 점을 고려하여(남순현, 한성열, 2003), 본 연구에서는 중·고등학생 시기를 청소년 전기, 대학생 시기를 청소년 후기로 규정하였다.

설문조사는 2007년 6월 7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되었고, 표본의 표집방법은 2개 중학교(195명, 43.3%), 2개 고등학교(166명, 36.9%), 1개 대학교(89명, 19.8%)에서 청소년 467명을 비확률적 표집추출하였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학년과 성비를 고려하여 남녀 중·고등학교 각각 1개교에서 1, 2, 3학년 1개 학급을 추출하여 유목적 편의표집하였다. 연구조사 방법은 연구목적에 충분히 숙지한 중·고등학교 선생님과 연구자가 각 학교에서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이 편포되었거나 무응답이 많은 설문지 17부를 제외한 450부만을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남자 청소년 207명(46.0%), 여자 청

소년 231명(51.3%)이었다(무응답, 12명). 평균 연령은 16.08세(SD=2.15세)였다. 형제 수는 1명이 102명(22.7%), 2명이 199명(44.2%), 3명이 100명(22.2%), 4명 이상이 19명(4.1%)이었다(무응답, 30명). 출생순위는 첫째가 187명(41.6%), 중간이 80명(17.8%), 막내가 146명(32.4%), 독자가 17명(3.8%)이었다(무응답, 20명). 부모 모두가 생존해 있는 청소년은 421명(93.6%)이었고, 부모의 결혼이 초혼인 청소년은 377명(83.8%)이었다.

2. 측정도구

1) 개인주의-집단주의 척도.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성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환경미와 나영주(2004)가 Singelis, Triandis, Bhawuk와 Gelfand(1995)의 개인주의-집단주의 척도(The Scale of Individualism-Collectivism Scale)와 선행연구들(구민요, 1996; 윤원아, 1997; 윤원아, 김기옥, 2000; 황지성, 1992)을 통해 청소년에게 맞게 수정보완한 청소년용 개인주의-집단주의 척도 24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Likert식 5점 척도이고, 본 연구에서 개인주의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alpha=.88$, 집단주의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alpha=.90$ 이었다.

2) 심리적 행복감 척도.

청소년이 최근 경험하는 일반적인 행복감을 알아보기 위해서 Kammann과 Flett(1983)가 개발한 척도를 남순현(2000)이 번안한 40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Likert식 5점 척도로 본 연구에서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alpha=.76$ 이었다.

3) 자기도피적 사고 척도.

Baumeister(1991)의 이론에 입각하여 신민섭(1992)이 제작한 자기도피적 사고 척도 중 단축형 36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진위형으로 '예', '아니오'로 응답하여야 하며, 본 연구에서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alpha=.95$ 이었다.

4) 낙관성 척도.

Scheier와 Carver(1985)가 개발한 Likert식 5점 척도 12개 문항을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alpha=.80$ 이었다.

5) 사회적응 척도.

Weissman과 Paykel(1974)이 사회적응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만든 구조화된 면담용 도구로써, 김영미(1998)가 번안한 문항 중에서 청소년의 학교생활과 친구관계에 관한 7개 문항만을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alpha=.70$ 이었다.

6) 귀인척도.

Abramson(1979)이 청소년 학업성적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귀속을 소재성, 통제성, 지속성 및 전반성 차원에서 어떻게 귀인하는지를 알아본 10점 척도 5문항을 김연(1985)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alpha=.62$ 로 다소 낮았다.

7) 동조척도.

청소년이 유명 연예인의 자살에 동조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2개의 동조척도를 사용하였다. 하나는 오경희(1989)가 Berndt(1979) 등의 연구를 참고로 개발한 또래동조성 척도 8문항이고(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 $\alpha=.83$), 다른 하나는 연구자가 선행연구(전근대, 이은영, 2006; Deutch & Gerard, 1955; Kelman, 1958; Park & Lessig,

1977)를 통해 추출한 동조 20문항이다.

본 연구에서 오경희(1989)의 또래 동조성 척도는 청소년이 유명연예인의 자살에 동조하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연구자가 제작한 동조척도는 유명연예인의 자살에 영향을 주는 동조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하였다. 연구자가 제작한 동조척도 중 신뢰도를 낮추는 2개 문항을 뺀 18개 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규범 동조(7개 문항), 정보 동조(5개 문항), 동일시 동조(6개 문항)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부록 1 참고). 본 연구에서 규범동조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alpha=.83$, 정보동조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alpha=.84$, 동일시동조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alpha=.77$ 이었다.

8) 자살사고척도.

청소년의 자살에 관한 생각을 측정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Reynolds(1987)의 자살사고 척도(Suicidal Ieation Questionnaire)를 신민섭(1993)이 번안한 30문항을 사용하였다. 척도는 Likert식 6점 척도로 본 연구에서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alpha=.97$ 이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 12.0을 사용하여 통계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각 측정변인은 내적일치도와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변인의 정상성을 검증하였다. 둘째, 청소년의 자살관련 사고 및 행동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고, 동조척도의 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가설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과 AMOS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변인들간의 인과관계를 추론하였다.

IV. 연구결과

1. 청소년의 자살관련 사고 및 행동

청소년의 자살충동, 자살시도 및 자살사고 경험 유무를 알아보기 위해서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과 같이 자살충동을 느낀 적이 있는 청소년은 208명(46.2%), 자해나 자살시도를 해 본 적이 있는 청소년은 76명(16.9%), 심각하게 자살을 고민한 적이 있는 청소년은 214명(47.5%)이었다. 또한, 자살충동, 자살시도 및 자살사고 경험 유무를 중·고·대학생별로 교차분석을 실시해본 결과는 표 2와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자살충동이나 자살시도 경험은 중학생이 49.2%, 20.1%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보다 다소 높은 빈도를 보였고, 자살사고는 대학생이 49.4%로 중·고등학생보다 다소 높은 빈도를 보임으로써 일반 청소년의 자살관련 사고와 행동의 심각성을 시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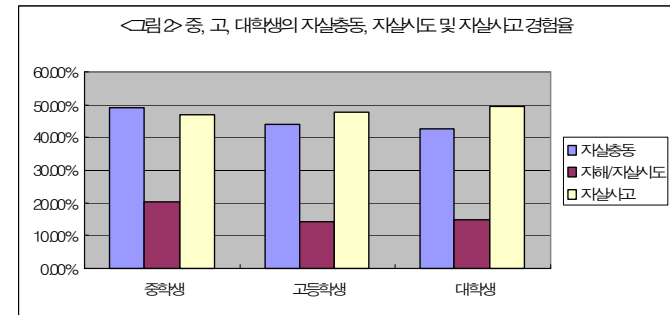
표 1. 청소년의 자살충동, 자살시도 및 자살사고 경험에 관한 빈도분석결과

	자살충동 경험 (무응답, 13명)	자해/자살 시도 경험 (무응답, 12명)	자살사고 경험 (무응답, 13명)
전혀없다	229명(50.9%)	362명(80.4%)	223명(49.6%)
1회	150명(33.3%)	59명(13.1%)	162명(36.0%)
2회	37명(8.2%)	9명(2.0%)	32명(7.1%)
3회 이상	21명(4.7%)	8명(1.8%)	13명(2.9%)

청소년 모방 자살사고의 심리적 기제에 관한 탐색 65

표 2. 중·고·대학생의 자살충동, 자살시도 및 자살사고 경험에 관한 교차분석결과

	자살충동 경험	자해/자살 시도 경험	자살사고 경험
중 학생	97명(49.2%)	39명(20.1%)	91명(46.7%)
고등학생	73명(43.9%)	24명(14.4%)	79명(47.6%)
대 학생	38명(42.6%)	13명(14.6%)	44명(49.4%)
	$\chi^2=11.36, p>.01$	$\chi^2=12.90, p>.01$	$\chi^2=10.40, p>.01$



2. 청소년의 개인주의-집단주의가 심리적 행복감과 사회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개인주의-집단주의가 심리적 행복감과 사회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개인주의-집단주의를 예언변인으로 심리적 행복감과 사회부적응에 각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 4와 같다. 연구결과, 설명변량 13%로 개인주의가 강한 청소년은 심리적 행복감에 유의한

66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9집

영향을 보이지 않았지만($\beta=.12, p>.01; F=31.97, p<.01$), 집단주의가 강한 청소년은 심리적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27, F=31.97, p<.01$). 하지만 개인주의가 강한 청소년과 집단주의가 강한 청소년 모두 청소년의 사회부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beta=.10, \beta=.09, p>.01; F=6.46, p<.01$). 따라서 개인주의가 강한 청소년이 집단주의가 강한 청소년에 비해 심리적 행복감을 덜 느끼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부적응은 겪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청소년의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을 심리적 행복감에 중다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β	t	R ²	F
개인주의	심리적 행복감	.12	2.35	.13	31.97**
집단주의		.27	5.28**		

** p<.01

표 4. 청소년의 개인주의-집단주의를 사회부적응에 중다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β	t	R ²	F
개인주의	사회부적응	.10	1.80	.03	6.46**
집단주의		.09	1.70		

** p<.01

3. 청소년의 개인주의와 우울간의 관계

개인주의가 강한 청소년과 우울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예언변인인 청소년의 개인주의를 종속변인 자기도피적 사고, 미래에 대한 낙관 및 심리적 행복감에 각각 회귀분석을 실시해보았다. 그 결과,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주의가 강한 청소년은 표 7에서도 심리적 행복감(자기비관)을 느끼지 않았다($\beta=.13, p>.01; F=34.06, p<.01$). 표 5와 6에서처럼 오히려 미래에 대해 비현실적 낙관태도(미래비관)를 보였으며($\beta=.35, F=63.70, p<.01$), 세상에 대해 자기도피적 사고(세상비관)도 보이지 않았다($\beta=.12, p>.01; F=31.97, p<.01$). 이런 결과는 Beck가 강조한 우울증의 인지삼체와는 다른 결과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개인주의가 강한 청소년이 문화정체감 혼란으로 심리적 불행감을 느낀다고 해서, 반드시 우울증상을 갖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암시한다.

표 5. 청소년의 개인주의를 자기도피적 사고에 회귀분석한 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β	t	R ²	F
개인주의	자기도피적 사고	.10	2.07	.01	4.28**
집단주의	(Beck, 세상비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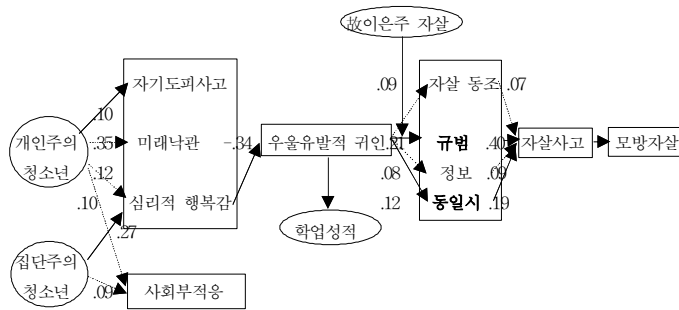
** p<.01

표 6. 청소년의 개인주의를 미래에 대한 낙관에 회귀분석한 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β	t	R ²	F
개인주의	미래에 대한 낙관	.35	7.98**	.12	63.70**
집단주의	(Beck, 미래비관)				

** p<.01

계를 나타내는 경로는 개인주의가 강한 청소년이 심리적 행복감에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beta = -.34, p < .01$), 심리적 행복감은 우울유발적 귀인에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beta = .19, p < .01$). 또한 개인주의가 강한 청소년이 학업과 같이 일상 삶에 대해 우울유발적 귀인을 하는 경향은 유명연예인(예, 故 이은주)의 자살에 맹목적 동조($\beta = .09, p > .01$)나 언론 보도와 같은 정보에 동조($\beta = .08, p > .01$)하여 자살하기보다는, 규범동조($\beta = .21, p < .01$)와 동일시 동조($\beta = .12, p < .05$)에 의해 자살사고($\beta = .40, \beta = .19, p < .01$)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그림 3과 같이 청소년의 모방자살에 관한 심리적 기제를 정리해볼 수 있다.



<그림 3> 연구가설모형 검증 결과

V. 논의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전환되는 과도기로 자아의식이 발달하면서 부모에게서 독립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처해있는 억제된 환경에서 벗어나려는 심리적 특성을 지닌다(Adams, Overholser & Spirito, 1994). 청소년기 발달

적 특징은 오늘날 개인주의가 강한 우리 사회의 청소년에게 문화정체감 혼란을 초래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발달적 특징과 문화정체감 혼란으로 인하여 심한 내적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청소년의 문제행동, 특히 모방자살의 심리적 기제를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살관련 사고와 행동 유무를 파악해보았다. 연구결과, 일반 청소년의 46.2%가 한 번 이상 자살충동을 느꼈다고 응답했고, 한 번 이상 자해나 자살시도를 경험한 청소년은 16.7%, 심각하게 자살을 고민한 적이 있는 청소년은 47.6%였다. 이런 결과는 청소년의 47%가 자살충동을 느낀 적이 있고, 하루 2명꼴로 목숨을 끊거나 자해를 한다는 청소년자살의 증가추이 현황(청소년개발원, 2006)을 그대로 반영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일반 청소년의 자살관련 사고와 행동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낸다.

아울러 중·고·대학생의 자살관련 사고와 행동을 비교해본 결과, 중·고·대학생별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중학생(49.2%, 20.1%)이 고등학생(43.9%, 14.4%)이나 대학생(42.6%, 14.6%)에 비해 다소 높은 자살충동과 자해/자살시도율을 보인 반면, 대학생(49.4%)이 중학생(46.7%)이나 고등학생(47.6%)보다 높은 자살사고율을 보였다. 따라서 자살관련 사고와 행동은 청소년의 특정시기에 더 빈번하게 나타나기보다는 청소년기 전반에 걸쳐 발생하고, 자살충동이나 자살관련 행동은 청소년기가 시작되는 중학생에게서 보다 더 심각하며, 자살관련 사고는 청소년기 후기 대학생에게서 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다시 말해서, 15-19세 청소년보다 20-24세 청소년의 자살률이 더 높고, 영화배우 이은주의 사망이후 20대 청소년의 모방자살율이 30.6%로 급증했다는 통계청(2006)의 보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본 연구

결과는 청소년 초기 중학생이 대학생보다 자살충동이나 행동을 더 통제하지 못하지만 자살성공률이 낮은 반면, 대학생의 높은 자살사고율은 청소년 후기 자아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자살을 행동화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발달적 특징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이 문화정체감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불행감이나 부적응을 야기하는지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실제로 집단주의가 강한 청소년($\beta=.27, p<.01$)이 개인주의가 강한 청소년($\beta=.12, p>.01$)에 비해 심리적 행복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의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는 심리사회적 부적응($\beta=.10, \beta=.09, p>.01$)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해 볼 때, 청소년기 문화정체감 혼란이 심리적 불행감을 가중시킴을 지지한다.

셋째, 오늘날 개인주의가 강한 청소년이 우울증상을 겪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개인주의가 강한 청소년이 집단과 개인간 가치나 사고의 불균형으로 심리적 불행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자기도피적 사고도 보이지 않았고($\beta=.10, p>.01$) 오히려 미래에 대해 낙관적이었다($\beta=.35, p<.01$). Beck는 우울증의 주요 인지편파로써 자신, 미래, 세상에 대한 비판을 꼽았다. 하지만 연구결과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청소년은 문화정체감 혼란으로 심리적 불행감을 느낄 뿐, 심각한 사회부적응이나 세상에 대한 자기도피적 사고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미래에 대해 비현실적 낙관태도를 보였다. 이는 개인주의가 강한 청소년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심리적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반드시 우울증상을 보이는 것은 아님을 시사한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집단주의가 강한 청소년보다 개인주의가 강한 청소년이 심리적 불

행감을 느끼는 것은 개인 내적인 심리적 우울 때문이 아닌, 문화정체감 혼란 때문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준다. 즉, 개인주의가 강한 청소년은 우리 문화에 뿌리깊이 자리잡고 있는 집단주의적 가치와 충돌하면서 행복을 느끼지 못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문화정체감 혼란을 겪고 있는 개인주의가 강한 청소년이 유명인의 자살에 동조하는 심리적 기제를 AMOS를 활용하여 인과관계를 검증했다. 구조방정식의 부합도 지수는 연구가설모형이 비교적 양호한 것임을 입증했다. 청소년의 개인주의는 심리적 불행감($\beta=-.19, p<.01$)을 야기했고, 청소년의 심리적 불행감은 주요사건(예, 학업성적)에 대해 우울유발적 귀인($\beta=.34, p<.01$)을 하게 함으로써 평소 동경하거나 우상시해왔던 유명인의 자살(예,故 이은주)이 하나의 기폭제가 되어 청소년은 그들의 행동에 동조($\beta=.21, \beta=.12, p<.01$)하는 하나의 행위로 자살($\beta=.40, \beta=.19, p<.01$)을 모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정체감 혼란으로 심리적 불행감을 느끼는 청소년이 자신의 주요사건에 대해 매사 우울유발적 귀인을 함으로써 유명 연예인의 자살에 매력을 느껴 자신의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에서 병리적 동일시나 규범동조를 보였다.

따라서 청소년기 생애발달단계 특징상, 자살취약성이 높은 청소년은 유명인의 자살에 충동적으로 동조의식을 느끼면서 자살사고를 유발하여 모방 자살에까지 이어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청소년이 유명인의 자살에 동조하는 유형을 세분화해본 결과에서도, 청소년은 단순히 신문보도나 미디어와 같은 대중매체의 영향($\beta=.08, p>.01$)이나 유명연예인(예,故 이은주)이 또래이기 때문에 맹목적 동조의식으로 자살사고

($\beta=.09$, $p>.01$)를 유발한 것은 아니었다. Pfeffer(1981)의 주장처럼, 청소년도 유명연예인과의 극단적인 병리적 동일시가 자아정체감 확립에 실패하여 미분화로 죄책감이 자살사고를 유발하거나 혹은 유명연예인의 자살 행위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사회가 청소년에게 바라는 것이라고 믿는 강한 믿음에서 자살에 동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Deutsch와 Gerard(1955), Kelman(1958)은 동조를 규범동조, 정보동조, 동실시동조로 구분했다. 규범동조(normative social influence)는 개인이 다른 사람의 행동과 일치하기를 바라고 동시에 다른 사람이 자기에 대한 기대를 범하는 것을 피하려는 생각에서 다른 사람이나 집단의 기대에 순응하는 것으로써, 집단이 개인에게 매력적이고 개인이 그 집단에 받아들여지기를 원할 때 발생한다. 정보동조(informal social influence)는 실체에 대한 증거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의 정보요인으로 수용될 때 동조가 발생하는 것으로써, 인간은 세상의 많은 현상을 직접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지각이나 경험, 지식에 의존한다. 동일시동조(identification)는 다른 사람과의 일치를 추구하거나(agreement seeking) 또는 동일성을 추구하는(identify seeking) 심리에 근거하여 다른 사람과 만족스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나 집단의 행동을 따르는 것이다.

Park와 Lessig(1977)는 청소년은 자아정체성과 관련한 인지구조가 성숙하지 않고 또래집단과 상호작용이 많기 때문에, 또래집단의 영향에 민감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청소년은 유명연예인을 하나의 준거집단으로 간주하고 그들의 영향에 민감했다. 하지만 청소년은 단지 유명연예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를 따라하거나 혹은 신문보도나 미디어의 자살보도의 영향으로 충동적으로 자살을 모방하지는 않

았다. 이보다는 자아정체감과 문화정체감 확립과정에서 청소년이 개인 내적인 가치와 집단의 가치규범간의 혼란을 겪으면서 자신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지 못하고 막연한 불안감으로 유명연예인의 자살과 일치된 행동을 선택함으로써 집단의 가치규범과 기준에 동조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청소년 자살의 심각성을 되짚어보고,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 모방자살의 심리적 기제를 청소년기 발달특징과 문화의 영향을 토대로 탐색해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서구문화의 유입은 자신의 개성과 개인주의적 가치를 중시하는 오늘날 청소년에게 가치관과 문화정체감의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더 폭넓은 청소년 고유의 독특한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기성세대는 더 이상 우리 문화를 집단주의 문화로 획일화하려는 경향에서 탈피하여야 하며, 우리 사회가 개인주의화되어가고 있는 청소년을 더 존중해줄 때 비로소 청소년기 문제행동, 즉 자살과 같은 역기능적인 문제가 예방될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모방자살에 관한 심리적 기제의 가설모형을 탐색한 것으로써, 실제로 자해나 자살을 시도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정체감 혼란을 탐색해보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살펴본 변인 이외에도 청소년문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청소년의 문화정체감 혼란이 모방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인들에 대한 탐색이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이런 한계점은 후속 연구에서 더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 김동직, 1999, 「문화적 맥락에서 본 개별성-관계성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연, 1985, 「우울증의 귀인모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영미, 1998, 「우울성 성격장애 진단의 임상적 타당성 및 유용성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효창, 2006, 「성인자살의 특성과 자살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사회문제』, 12, 1, 15-33.
- 남순현, 2000, 「가족의 정서체계 역동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남순현, 한성열, 2003, 「신혼기 부부의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결혼 후 친밀감에 미치는 원가족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임상』, 22, 3, 505-523.
- 박정현, 서은국, 2007, 「사람의 내적, 외적 속성의 중요성을 통해 본 한국인의 행복관」.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189-190.
- 보건복지부, 2005, 「자살예방전문가가 권고하는 언론의 자살보도기준」.
- 신민섭, 1993, 「자살기제에 대한 실증적 연구: 자기도피 척도의 타당화」.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오경희, 1989, 「아동의 또래성발달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성립, 윤진, 1993, 「청소년기 자살생각과 그 관련변인: 교학생을 대상으로 한 심리적 특성의 탐색」. 『한국심리학회지:발달』, 6, 1, 107-120.
- 이승연, 2007, 「청소년 자살에 대한 고등학교 교사의 지식 과 오해」. 『한국심리학회지:사회문제』, 13, 2, 97-117.
- 임양화, 오경자, 1989, 「우울한 아동의 귀인유형」. 『한국심리학회지:임상』, 8, 69-76.
- 임희섭, 1997, 「한국인과 한국문화의 탐구」. 『민족문화연구』, 30, 143-162.
- 장근영, 윤진, 1992, 「청소년기 자아중심성: 분리-개별화과정 및 역할취득 수준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발달』, 5, 1, 157-175.
- 전근대, 이은영, 2006, 「준거집단이 청소년의 패션브랜드 동조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30, 9, 1434-1444.
- 조궁호, 김은진, 2001, 「문화성향과 동조행동」. 『한국심리학회지:사회 및 성격』, 15, 1, 139-165.
- 차재호, 정지원, 1993, 「현대한국사회에서의 집합주의」. 『한국심리학회지:사회』, 7, 1, 150-153.
- 최상진, 2007, 「마음경험 구성의 심리학」.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1-14.
- 한경미, 나영주, 2004, 「청소년의 라이프스타일과 개인주의-집단주의에 따른 선호감성 분석」. 『한국의류산업학회지』, 6, 1, 51-60.
- Adams, D. M., Overholser, J. C. & Spirito, A., 1994, "Stressful life events associated with adolescent suicide attempts."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39, 43-48.
- Asch, S. E., 1951, "Effects of group pressure upon the modification and distortion of judgments." In Guetzkow(ed.), *Group, Leadership and Men*,

- Pittsburgh, PA: Carngie Press, 177-190.
- Baumeister, R. E., 1990, "Suicide as escape from self." *Psychological Review*, 97, 90-113.
- Beck, A. T., 1976, Depression: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New York: Hoebner Medical Devision, Hapner & Row.
- Bentler, P. M., & Bonett, D. G., 1980, "Significance tests and goodness of fit in the analysis of convariance structure." *Psychological Bulletin*, 88, 588-606.
- Blos, P., 1962, *On adolescence*. NY: The Free Press.
- Deutch, M. & Gerard, H. B., 1955, "A Study of normative and informational social influence upon individual judgment."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1, 629-636.
- Evan, E., Hawton, K., & Rodham, K., 2004, "Factors associated with suicidal phenomena in adolescent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4, 957-979.
- Fashion Marketing Magazine, 1996, NON AGE CAREER. May, 47.
- Higgins, E. T., 1987, "Self-discrepancy theory: A theory relation self and affect." *Psychological Review*, 94, 319-340.
- Kazdin, A. E., French, N. H., Unis, A. S., Ezveldt-Dawson, K., & Sherick, R. B., 1983, "Hopelessness, depression and suicidal intent among psychiatrically disturbed inpatient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1, 504-510.
- Kelman, H. C., 1958, "Compliance, identification and internalization: Three Process of Attitude Chang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2, 51-60.
- Lapsley, D. K., 1991, "Egocentrism theory and the New Look at the Imaginary Audience and Personal Fable in adolescence." In R. M. Lerner, A. C. Petersen, & J. Brooks-Gunn(Eds.). *The Encyclopedia of adolescence*. NY: Garland.
- Lapsley, D. & Murphy, M., 1985, "Another look at the theoretical assumptions of adolescent egocentrism." *Developmental Review*, 5, 201-217.
- McWhirter, J. J., McWhirter, B. T., McWhirter, E. H., & McWhirter, R. J., 2004, *At-risk youth*. Belmont, CA: Thompson.
- Park, C. W. & Lessig, V. P., 1977, "Students and housewives: Differences in Susceptibility to Reference Group Influenc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4, 102-110.
- Pfeffer, S., 1981, "The family system of suicidal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35, 3, 330-341.
- Scheier, M. F. & Carver, C. S., 1985, "Optimism, coping, and health: Assessment and implication of generalized outcome experiences." *Health Psychology*, 4, 219-247.
- Seligman, M. E. P., Kaslow, N. J., Alloy, L. B. Peterson, C., Tanenbaum, R. L., & Abramson, L. Y., 1984,

"Attributional Style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3, 2, 235-238.

Singelis, T. M., Triandis, H. C., Bhawuk, D. D., & Gelfand, M., 1995, "Horizontal and vertical dimension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A theoretical and measurement refinement." *Cross-Cultural Research*, 29, 240-275.

Specht, R. & Craig, G. J., 1987, *Human Development: A Social Work Perspective*. NJ: Prentice-Hall.

Woodarski, J. S. & Harris, P., 1987, "Adolescent suicide: A review of influences and the means for prevention."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32, 6, 477-485.

뉴스투데이, 2006. 9. 6, OECD. 「자살 1위」.

뉴스 머니 투데이, 2006. 9. 6, '자살은 절대 안돼요'... 「자살예방 7대 선언 선포」.

보건복지부, 2006, 「2006년 청소년 자살통계」.

세계일보, 2004. 9. 22., 「하루 평균 30명 목숨 끊어 자살률 사상 최고」.

통계청, 2005, 「2005년 사망원인 통계연보」.

통계청, 2006, 「2006년 청소년 통계」.

파이낸셜뉴스, 2006. 10. 30, 「청소년 하루 2명 자살-자해」

한국일보, 2007. 8. 8, 「저성장·고령화가 자살률 높였다」

헤럴드경제, 2007. 2. 12, 「'들쭉날쭉 우울증' 자살신호? ... 유명인 자살은 베르테르 효과위험」.

A Study on Psychosocial Mechanism of Copycat Suicidal Ideation among Adolescents

Nam, Soon-hyeon
(Honam University)

Abstract

Recently suicide rates get serious as much as exceeding traffic accident rates. Especially, it is reported that 47% of adolescents have ever felt the impulse to kill themselves and so adolescent suicide became a serious social issue. Therefore,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grasp seriousness of adolescent suicide and to investigate an effect of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of an adolescence and cultural identify confusion on adolescent copycat suicide. The research investigated with 450 middle school, high school and university students from 13 years old to 22 years old from June 7, 2007 to June 25, 2007.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we could know seriousness of adolescent suicide as 208(46.2%) adolescents who felt the impulse to kill themselves more than once, 76(16.9%) adolescents who experienced self-injury or suicide attempt more than once and 214(47.5%) adolescents who have ever been in a serious

suicidal ideation. Second, adolescents with a strong individualism didn't feel a psychological happiness in comparison with adolescents with a collectivism, but didn't go through psychosocial maladjustment. Third, adolescents with a strong individualism didn't have depression though they didn't feel a psychological happiness. Namely, they didn't have a psychosocial maladjustment or escape from the self but rather had an unrealistic optimism for the future. Finally, as the result analyzing a causal model about adolescent copycat suicide using AMOS, adolescents's psychological unhappiness by cultural identify confusion promoted significant depressogenic attribution about main accidents (Academic achievement level). Such a tendency was amplified by a public characters' suicide (The deceased actress Lee, Eun Joo) and it was appeared that suicide accidents were caused by a pathological identification and a normative social influence which adolescents, they believed, followed their suicide acts to escape from a psychological unhappiness and came to commit an copycat suicide.

Key Words: adolescent, copycat suicide, ego identity, egocentrism, cultural identity, conformity, normative social influence, informal social influence, identification

<부록 1> 동조척도의 요인분석 결과

문항	요인 1 (규범 $\alpha=.83$)	요인 2 (정보 $\alpha=.84$)	요인 3 (동일시 $\alpha=.77$)	h^2
1. 자신이 속한 집단의 규범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77			.64
2. 주위 사람의 눈총을 받을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	.72			.57
3. 친구들과의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	.75			.58
4. 어른들이 금기시하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	.71			.56
5.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른 사람의 조언을 구한다.	.61			.46
6. 친구들의 행동을 관찰한다.	.54			.36
8. 주변 어른들의 조언을 귀담아 듣는다.	.69			.53
10. 잡지에 실린 유행경향에 민감하다.		.69		.53
11. 친구들의 행동을 잘 모방한다.		.56		.46
12. 좋아하는 연예인을 늘 우상시해왔다.		.82		.70
13. 좋아하는 연예인의 옷차림이나 행동을 흉내낸다.		.83		.74
14. 좋아하는 연예인에 관한 언론보도에 전적으로 맹신한다.		.77		.69
7. 언론보도를 맹신하는 편이다.			.38	.34
9. 친구가 시키는 일은 무조건 하는 편이다.			.65	.52
15. 나는 귀가 얇은 편이다.			.52	.39
16. 친구들의 행동은 항상 옳다.			.72	.60
17. 친구들의 무리에 속하려고 애쓰는 편이다.			.59	.46
18. 친구들과 내 의견이 불일치할 때, 친구들의 의견을 따른다.			.72	.59
고 유 값	3.70	3.17	2.85	
설명변량	20.55	17.63	15.83	
누적 설명변량	20.55	38.18	54.01	